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관리자과정 강의>

2010. 2. 17

왕 한 신(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평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단상-평가? 나의 재구성”

1. 들어가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관리자과정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저는 강의를 처음 해 봅니다. 저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특강을 하거나 교육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경험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육정책이나, 교육방법 등의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교육적인 문제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스쳐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성과급이니 구조조정이니, 능력개발이니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직업과 관련된 민감한 현상들의 출발점이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평가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평가가 있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담 때문이겠지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심리적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서적 물질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이고, 둘째, 공동체의 일부로서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과, 셋째, 일할 때 자신이 무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능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과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율성이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면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런 욕구를 모두 충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평가라는 부담감이 이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마구 뒤집어놓는 수단이 된다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는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인문학적인 단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가라는 것이 너무 기계적이 되어버리고, 수

치화된 형태로서 우리를 통제하고, 상대화된 서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나 혹은 통제의 수단으로 자주 탈바꿈하는 평가의 의미와 그 속에서 소외되어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가르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직업전선에서 행하는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일들은 우리가 행하는 전인격적인 작업입니다. 저의 경우 삶의 안정을 존중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의 현장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없이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알파한 단기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업적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평가가 인식된다면 이는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은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가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조언보다는 평가가 지니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과정은 여러분 각자 각자가 저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문제를 비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전개시켜볼까 합니다. 지금의 경제 불황과 위기가 오기 얼마 전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끊임 없이 불어 닥친 부동산과 관련된 엄청난 바람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없는 이 바람은 누구나 맞아야만 했던 숙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 바람이 멈춘 것은 아니고 아직도 어딘가 에서는 살랑살랑 미풍처럼 우리들의 언저리에서 이 바람은 불고 있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집을 더 이상 사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집을 평가해야 하는 또 다른 집을 떠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집값이 오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근본적으로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이 3억인데 작년에 2억 5천이던 것이 금년에 3억이 되었으니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3억 5천까지 될 때를 기다려서 팔아 1억 정도젠으로익을 챙길까? 또 어디를 잘 물색하면 2억 주고 사서 한 4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것은 뭘, ? 은행 대출을 잘만 받으면 지금은 은행 빚이라도 잘만 사서 팔면 대박나 할까, ? 부동산 투기에 관계없는 사람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 불안요소로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흔들어 지금 것이지요. 잘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공간이던 집이 내일 모레면 이사할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투기의 대상으로 내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기를 두나의게 만들고 우리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고 이웃동네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고 하는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월감으로 울고 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집을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생기는 불안감을 언급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삶의 여유와 쉼을 가지고 일상의 의식주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교환가치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 값을 매기고 상대적인 우월감과 박탈감의 매개체가 되어 버린다는 점이지요. 오늘날 평가라는 의미도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상대적인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상대적인 서열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매개체가 되어버리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지요.

교육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성취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목표성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목표성향(Performance Goal)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목표성향(Learning Goal)입니다. 평가목표성향의 사람은 공부의 경향이 나의 위치나 서열, 상대적인 성적의 확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증명(Proving)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학습목표성향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전보다 개선되어졌는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실천하게 되었는가? 등의 나를 개선(Improving)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 보고,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 보는 그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은 학습목표성향을 지닐 때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평가가 바로 이러한 평가목표성향의 인간을 길러내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평가를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다른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동시에 언급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각도에서 평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칼 마르크스를 예로 들어 봅시다. 마르크스가 소위 좌파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를 개인적 책임이라는 굴레와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꼭 자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삶의 책임을 개인으로부터 사회구조 속으로 옮기는 데에는 어쩌면 매우 인간적인 애정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제도의 잘못을 탓하면서 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것임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한계가 현실로서 드러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인간사랑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와 실천의 처절한 실패를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유경제의 부활을 통해 목도하게 되었지요. 이런 역사의 현장교과서를 통하여 좌파의 모토인 “내 탓이 아니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고 어느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쟁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고, 자유의 제한 일수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다시 “내 탓이요”라고 인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좋은 대학에도 가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눈치도 살피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열등감도 생기고, 모욕도 당해보고,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좋아 더러워서라도 나도 열심히 한 번 해 보아야겠다! 뭐 이런 오기와 결심이 생기면서 공부에 대한

약속같은 노력이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썩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희망이 보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매정함도 있고, 어떤 목표를 위한 세속적인 혹은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되고 마는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은 바깥 즉 외적인 자극이나 충격이 방편이 되어 이로 인해 안 즉 나의 내부를 다시 살피게 됨으로 내 안이 깊어지고 의미 있는 참 모습의 안이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평가라는 객관화된 통제제도는 우리의 안을 깊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로 인한 염려와 상대적인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인한 비교와 결과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스며있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 자체 나의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해 주는 의미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믿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2. 평가는 나의 “재 구 성” 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로 평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 근거해서 저는 평가를 <나의 재구성>이라고 일단 정의 내려놓고 제 생각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구성이라는 각각의 음절에 따라 운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재: 재미있게

구: 구체적으로

성: 성공을 확신하며

즉 평가는 나를 재구성하는 노력인데 이 노력은 나 자신을 다시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는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찰의 과정은 고뇌와 염려와 회한으로 점철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즐겁고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희망찬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재구성의 각각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 재미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찌면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행복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행복의 핵심은 바로 일의 즐거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늘 마지못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삶의 과정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람되다든지 의미 있다든지 하면서 우리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재미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재미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평가를 통해 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이러한 일의 재미를 더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좋은 일은 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먹는 걸 우리는 즐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 만치명 먹지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음식을 철저히 선별해서 먹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경우도 있. . 매우 예외 먹지경우지요. 우리가 즐겨서 먹는 것이 대개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요리법을 배우고 별해서따라 요리해서만들어 보는 것도 사실은 먹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경우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더 많은 먹는 즐거움을 위한 생업지요.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생명을 세대 간에 연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친 대가로 받는 월급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나가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도구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의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평가는 이 일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도구로 좀 더 고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맛있는 것만 먹게 되는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지요. 맛있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름기 많고 살찌게 만들고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게 하면서도,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평가라는 것이 나를 옹아매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하게 하여 하여 나의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편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일의 내용이나 방법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은 제 생각에는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혹은 무서워서, 혹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미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즉, 억압이나 명령 혹은 강제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여야 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며 나의 행동을 막지 않을 때 우리는 상태의 자유가 ‘행동의 자유’ 혹은 ‘외부로부터의 자유’라면 진정한 의미의 나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양심이나 도덕 혹은 유희과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자유 즉 ‘의지의 자유’ 혹은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의미 있는 자유의 추구가 가능해 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게’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외적인 자유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가르치는 일을 행한다는 ‘행동으로서의 자유’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이기적인 유혹이나 충동적인 야심에서 나를 절제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의지적인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의 균형 잡힌 재미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한 과정이 바로 이러한 즐거우면서도 가치 있는 가르침의 기회를 발견하고 만들어 내고, 추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지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인생의 경험이나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닫게 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내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빈약하게 살아왔나 하는 점입니다. 즉, 그전에는 무관심하게 흘려보냈고 별 의미도 두지 않았던 사물이나 현상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길을 가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길가의 꽃이나 풀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꽃 이름이 무엇인지 풀이름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피어있는지 등등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의 레퍼토리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알아가되 간단히 생각하던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게 되는 과정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유익을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나의 객관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에는 약점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의 자신을 비춰 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거울로 비춰보는 자아(looking-glass self)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 스스로 규정한다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보다 객관적인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지요.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내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여 지는 모습대로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내 모습을 거울을 보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어렴풋했던 나를 보다 더 구체적인 객관적인 모습의 나의 현장으로 끌고 나와 나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구체적인 과정은 사물이나 지식을 보는 습관이나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된 박제화된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평가라는 과정은 이러한 박제화된 지식을 하나둘 점차 살아있는 지식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지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풀이나 나무도 다 성질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잡초, 화초, 꽃, 상록수, 활엽수 등으로 간단히 취급해 버리고 말지요. 소나무는 전나무, 잣나무와도 그 성질이 다르고 등등의 보다 구체화된 살아있는 지식을 축적하도록 하는 과정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3) 성공을 확신하며

스티븐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 1의 습관을 “주도적이 되라”(Be Proactive)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Reactive)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바로 미래를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Proactive)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예견된 목표나 비전에 맞추어 미리 나를 조정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목표나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끊임 없이 우리의 방향과 노선을 점검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가도 이 목표를 향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긍정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미래에 대한 가능성, 성공에 대한 확신감의 끈을 더욱 끌어당기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끈이 전체되지 않은 평가는 지옥입니다. 늘 부담스럽고 힘든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자칫 우리의 일이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성공의 끈을 잡게 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이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3. 나오며

평가의 인문적인 단상이라는 주제를 달아놓고 약간은 억지도 부려보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나의 재구성이라는 의미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평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도 감히 침범하거나 비하할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특권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이 특권이 이 고귀한 소명이 알량한 순간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의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평가가 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나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나를 발전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며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다져봅니다.